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및 당산봉 민속식물>에 대한 토론편

좌 동 열 / 문화관광해설사

I. 고산 마을의 지명

제주 서부지역의 가장 끝 마을인 고산리는 해안에 접해서 두 개의 오름이 있는데 '수월봉'과 '당산봉'이다. 수월봉의 옛 이름은 '고산'이었고, 당산봉은 마을 본향당이 있는 오름이라 하여 '당오름'이라고도 한다.

수월봉과 당산봉 사이에는 '차귀벙뒤'라 하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구석기유물과 신석기 유물들이 다량 출토된 곳이다. 현재 '고산리선사유적지'라 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과거 차귀벙뒤 평야는 논이었는데, 한라산 붉은오름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차귀벙뒤로 흘러내려 넓은 논에 벼를 재배할 수 있었다. 지금은 농지 개량으로 밭으로 조성되어 있다.

II. 두 개 오름의 이용

수월봉의 완만한 경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었다. 과거 절강고구마인 감제 빼빼기를 권장하던 시기에는 이 오름은 온통 썰어 말리는 고구마 천지였다. 잔디밭에서 말린 고구마는 최상 품질의 절강고구마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마을에서는 수월봉을 초지로 관리하였으며, 그 외 계절에는 마을의 행사장으로 이용하였다. 봄이면 이곳에 모여 마을 야유회를 가졌고 마을 잔치 등도 이곳에서 행해졌었다.

지금 수월봉 정상에 가보면 '영산비(靈山碑)'가 세워져 있다. 고산 마을은 강수량이 적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수월봉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기우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므로 경작을 금한다는 내용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

수월봉은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인데 이로 인해 인위적인 간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당산봉'은 마을 본향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은 '당오름'이라고 말한다.

당산봉을 마을에서 보면 경사가 급하고 경사면에 바위가 드러나 있어 농지로는 이용이 어렵다. 다만 오름 아래 일부지역에서만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당오름은 초가집의 지붕을 이는 띠(새)를 재배하였다. 그때 띠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는데, 그 사람을 '캐차관'이라고 불렀다. 캐차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름을 돌아다니며 띠를 돌보았다. 심지어 아이들이 몰래 새왓에 들어가 뽕기(뽕이)를 뽑는 걸 보면 달려와 혼을 내기며 쫓아 내었다.

두 개의 오름은 마을 가까이에 있으면서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었다.

Ⅲ. 질문

1. 수월봉은 일찍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었는데, 식생이 다양하지 못하고 외래종이 많게 된 것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당산봉의 경우 경사가 급하고 바위가 많아 큰 나무들이 자라기에 적합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오름에는 어떤 식물들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민속식물> 수집 및 활용 방안

1) ‘민속식물’에 대한 자료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민속식물 관련 구전자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그 지식을 수집해야 하는 급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2) ‘민속식물’의 전통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약을 개발하여 크게 성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 한 두개 정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